



사진 왼쪽부터 만해축전 대상 수상자인 터키 사상이 페롤라 굴렌, 펠름 WFB 사무총장, 일면 스님, 김성수 주교,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미얀마 소설가 다공 따야, 모로코 학자 엠더라힘 엘 알람, 국악인 안숙선, 독일 소설가 이고 슐체, 러시아 시인 케드로프. 이날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린 인제 하늘내린센터에는 1500여 대중이 모여 만해 스님의 평화, 생명존중, 민족애를 기렸다.

축전 현장 이모저모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져

2013만해축전은 종전과 달리 대규모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는 등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 지난 4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만해마을을 동국대에 기증한 데 따라 동국대가 축제의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30여 명의 홍보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2013 만해축전은 만해학회와 한국시인협회 등 40여개 불교, 문학,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쳤다.

전국불교청년대회 한반도 평화 결의 선언

특히 대한불교청년회가 11일 개최한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는 전국 청년 불교인 60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문을 선언하는 등 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 스님이 1920년 6월 결성한 '불교청년회'가 전신으로 이번 만해축전에서 행사 진행 등을 돕기도 했다.

이밖에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지난해부터 편찬사업을 진행해 온 '한국대표명시선 100' 완간 기념행사로 '한국시 100년 대회'가 11일 펼쳐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만해 스님이 1922년 시 '무궁화를 심고자'를 활자화한 것을 기념해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편찬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식 행사로 만해마을에는 저명 시인 200여 명이 모여 한국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만해마을에서 열린 대통령 전국불교청년대회 모습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동문화축제로 확대

또 대동문화축제로 지역민 축구대회, 게이틀 대회, 야구대회, 산악초 호수축제가 잇따라 열리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전으로 꾸며졌다.

이와함께 11일 인제실내체육관에서는 고교생 문학축제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2013 만해축전 제15회 전국고교생 백일장'이 전국 고교생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같은날 저녁에는 만해마을 넘의침목 광장에서 제11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열려 최후로 교수(고려대·시 부문) 시인과 박현수 교수(경북대·학술 부문)가 각각 상을 수상했다.

12일과 13일에는 문학평론가 권영민씨가 진행하는 문학콘서트가 한국현대문학회의 주관으로 열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동제와 대동제의 일환으로 인제문화예술인의 밤, 다문화가족 예술제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축전을 전후로 28개 단체가 세미나를 열어 총 12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2013 萬海祝典 “자유 평화 위한 새 울림 일으키자”

‘선린 상조’ 주제로 8월 10~13일 개최... 제 17회 만해대상 시상식

인제 하늘내린센터에는 만해 스님의 사상을 알리는 형형색색의 만화가 늘어섰다. 어린 아이들의 사물놀이 장단과 함께 문을 연 '2013 만해축전'에서는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인류애가 모아졌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자유·평등·자비 사상 선양을 위한 '2013만해축전'이 '선린과 상조'라는 주제 아래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 일원에서 펼쳐졌다.

17회를 맞는 이번 축전은 만해대상 시상식, 전국 고교생 백일장, 학술·문학심포지엄 등과 함께 '한국시 100년 대회'와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더해졌다.

역대 대회 중 최다인 9명의 대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참가인원도 예년보다 많은 1500여 명으로 늘었다. 시상식장인 하늘내린센터는 600여 좌석이 행

사 시작 전 좌객으며 '님의 침묵 서예대전' 수상작 전시장 등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원통고 3학년 강효빈 학생의 만해 추모시 낭독으로 시작된 입재식에서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속초 신흥사 주지 우승 스님,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등 1500여 대중이 선린·상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끌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은 세계평화를 위해 모든 이들이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룰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인류사적 전환의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리 보낸 축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자유와 평등, 평화를 실현하고자 진력하신 만해 선사의 정신과 행적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은 이 시대의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인류가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 정도"라고 했다.

만해대상 역대 최대 9명 수상  
한국시100년대회 눈길  
행사 다채, 1500여 대중 참여

대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2013평창 동계스피셜올림픽, 2013GTT국제무역박람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만해 스님이 추구한 자유와 민족, 평화와 실천 이념이 시대정신으로 구현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식에 이어 제17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평화부문에 터키의 학자·사상가인 페롤라 굴렌, 김성수 성공회 주교, 세계불교도우의회, 실천부문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모로코 소설가 엠더라힘 엘 알람, 미얀마 원로시인 겸 소설가 다공 따야, 문예부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안숙선 명창, 독일 소설가 이고 슐체, 러시아 시인 콘스탄틴 케드로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축전 입재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하신 신홍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께서 올해 봄 만해마을을 동국대에 기증하신 것은 만해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세상에 더욱 널리 알리라는 큰 뜻"이라고 강조하며 "만해마을이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전 국민의 교육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입재식이 끝난 뒤 수상자들은 함께 악수하고 또는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내었다.

인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터뷰 “티벳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팔롬 타이아리 사무총장

“같은 불교 국가인 중국과 티벳이 불교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해평화대상 수상자 중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이하 WFB) 대표로 참가한 팔롬 타이아리 사무총장(사진)은 티벳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팔롬 타이아리 사무총장은 “태국에 위치한 세계불교도우의회 본부와 세계에 펼쳐진 WFB지부를 대신해 평화상을 수상해 영광이다”며 티벳 문제에 대해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소통한다면 해결 방안이 나오리라 본다”며 “WFB가 대화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여수에서 열린 WFB대회에서 중국 불교대표단은 티벳 불교대표단의 참가를 이유로 대회 중도 퇴장한 바 있다. 2014년 WFB 대회는 중국 개최가 유력하다. WFB는 9월 말~10월 중으로 자기 대회 개최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팔롬 사무총장은 “불교 간 우호를 넘어 비불교 단체들과의 상호 협력도 필요한 시기”라며 “다양한 연대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벽 넘어 자비 실천의 손 맞잡다

일면 스님과 김성수 성공회 주교...일면 스님은 상금 3천만원 전액 기부

불교와 기독교의 벽을 넘어 자비사상 실천에 앞장 서온 두 종교인이 만해축전에서 손을 맞잡았다. 바로 일면 스님과 김성수 성공회 주교다. <사진>

실천부문 대상을 수상한 일면 스님은 수상소감으로 “2000년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한 뇌사자 청년의 간을 이식받고 살아났다”며 “덤으로 사는 제 인생에서 오직 하나 남은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대상 상금 3000만원을 아름다운운동행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하기도 했다. 평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성공회 김성수 주교는 “만해를 기리는 상을 종교의 벽을 넘어 이렇게 받으니, 감사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이런 게 요즘 사



람들이 말하는 소통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많은 대중들 속에서도 종교를 넘어 악수에서 빛이 나는 듯 했다.



저작권사 표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들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간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과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